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51

골로새서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골로새서

Colossians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2:6, 7)

Ὡς οὖν παρελάβετε τὸν Χριστὸν Ἰησοῦν τὸν κύριον, ἐν αὐτῷ περιπατεῖτε, ἑρριζωμένοι καὶ ἐποικοδομούμενοι ἐν αὐτῷ καὶ βεβαιούμενοι τῇ πίστει καθὼς ἐδιδάχθητε, περισσεύοντες ἐν εὐχαριστίᾳ .

골로새서 차례

골로새서 서론	〈10제〉	… 433
제 1 장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	〈21제〉	… 437
제 2 장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	〈14제〉	… 445
제 3 장 새 사람의 생활 원리	〈16제〉	… 452
제 4 장 기도에 힘쓰고 깨어 있으라	〈16제〉	… 459

골로새서 특별 자료 차례

골로새서 서론 〈지도 자료〉 골로새의 위치	436
제 1 장 〈본장의 요절〉	444
제 2 장 〈화보 자료〉 십자가 모양의 세례 집전소	451
제 3 장 〈연구 자료〉 스토아파(Stoics)	458
제 4 장 〈본장의 요절〉	464

골로새서 서론

1. ㉠ 본서신의 저자는 누구인가?

- ㉠ (1) 본서신의 저자는 1:1;4:18에 나타난 대로 사도 바울이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본서신에 대한 사도 바울의 저작권을 의심한다.
- (2) 첫째, 본서신에는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즐겨 쓰는 의(義), 계시, 구원, 복종, 믿는 등의 어휘가 나타나지 않는다.
- (3) 둘째, 본서신에는 2세기에 성행했던 영지주의(靈知主義)에 대한 경계의 내용이 두드러지는데 1세기에 살았던 바울이 그러한 내용을 썼다고 보기가 힘들다.
- (4) 셋째, 본서신에 흐르는 사상과 바울의 다른 서신들이 지닌 사상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가령 1:13-23의 기록본은 요한복음의 <로고스> 사상과 매우 유사하다(요1:1-18).
- (5) 하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본서신이 바울에 의해 기록되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본서신의 용어가 바울이 기록했던 다른 서신에서 사용한 용어와 다소 다른 것은 본서신의 기록 동기 내지 목적이 다른 서신들과 달랐기 때문이다.
- (6) 또한 본서신의 내용이 2세기의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경계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것도 무리이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바울이 생존했던 1세기 후반에도 영지주의가 이미 존재했다.
- (7) 그리고 본서신에 담겨 있는 사상이 다른 서신의 사상과 차이점을 갖는 것도 본서신의 기록 동기가 다른 서신들과 다르다고 하는 점을 감안하면 별 문제가 안 된다.

2. ㉡ 본서신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 ㉡ (1)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본서신의 수신자이다(1:2).
- (2) 골로새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소아시아 내륙의 루쿠스 골짜기(Lycus Valley) 남안(南岸)에 위치해 있던 작은 성읍이었다.
- (3) B. C. 5세기경에는 '브루기아의 큰 성읍'이라고 알려질 정도로 고대 상업의 중심지였으나 사도 바울 시대에는 소도시로 전락한 상태였다.
- (4) 그렇게 된 것은 골로새 서쪽 160km 지점에 위치해 있었던 에베소 지방과 유브라테 지방 사이의 교역로(交易路)가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교역로를 위해 골로새 서북쪽 17.5km 지점에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생겨났다. 라오디게아 북쪽 10km 지점의 히에라볼리도 같은 목적으로 생겨났다.
- (5)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누구에 의해 개척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학자들 사이에 논의되고 있다. 갈라디아 교회 등에 의해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도중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행 19:1-10) 최초의 선교가 이곳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중 두번째 견해가 지배적이다.
- (6) 이 교회의 성도의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본서신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참조, 2:1, 8, 20;3:11;4:13-17).
- (7) 한편 2:1;4:16을 참조해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도 본서신의 수신자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골로새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에 봉착했었던 것이 틀림없다.

3. **㉠** 본서신의 기록 장소와 연대를 말하라.

- ㉠** (1) 사도 바울은 본서신을 기록했을 때 옥중에 있었다(4:3, 18). 그렇다면 본서신이 기록된 장소가 로마였을 것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갖는다.
- (2) 더우기 본서신은 에베소서와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어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무렵(행 28:30, 31)에 기록되었다는 주장이 학자들 사이에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 (3) 본서신이 로마 옥중에서 쓰여졌다면 기록 연대는 A. D. 62년경이 될 것이다. 아마도 에베소서보다는 약간 먼저 기록된 것 같다.

4. **㉠** 본서신이 신약 성경에서 지니는 위치를 논하라.

- ㉠** (1) 본서신은 27권의 신약 성경 중 바울이 기록한 13편의 서신 가운데 하나이다.
- (2) 특히 본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로마 옥중에서 작성되었기에 옥중서신(獄中書信)이라고 불리운다.
- (3) 한편 신약에 포함된 21편의 서신 중에서 본서신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속성에 대해 묘사한 서신은 찾아 보기가 힘들다.
- (4) 따라서 본서신은 만유(萬有)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서사시(敘事詩)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 본서신의 기록 목적을 설명하라.

- ㉠** (1) 사도 바울이 본서신을 기록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동기는 에바브라(1:8)가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혼합주의적인 이단들의 위협성에 대해 보고하자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려는 결심이 섰기 때문이다.
- (2)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혼합주의적 이단들의 가르침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내포되어 있었다.
- (3) 첫째는 유대주의 혹은 율법주의적인 요소였다. 바울은 율법주의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율법주의보다 우월한 기독교에 대해 변증했다(2:11-17).
- (4) 둘째는 이방 철학적인 요소였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천사 숭배(2:18)와 영지주의 철학에 입각한 금욕주의적 가르침(2:20-23)을 들 수 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하며 기독교의 바른 가르침을 전개하였다(2:1-10, 18-23).
- (5) 셋째는 위장(偽裝)된 기독교의 형식주의적 요소였다.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를 격하시키고, 그리스도의 주권과 지존(至尊)하심을 인정하지도 않은 추잡한 외형적 기독교는 여느 이단 못지않게 위험한 요소였던 것이다. 본서신의 반절 가량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할애되었다(3:1-4:6).

6. **㉠** 본서신은 같은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와 많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다. 이것을 설명하라.

- ㉠** (1) 본서신과 에베소서는 내용상 매우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쌍둥이 서신’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 (2) 우선 두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조리있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
- (3) 또한 두 서신은 신앙적으로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을 격려하기 위한 권면에 있어서도 닮았다.
- (4) 하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두 서신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 (5) 첫째,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에 본서신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 (6) 둘째, 에베소서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본서신은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浮刻)시켜 설명하고 있다.

(7) 세째, 에베소서는 이단과의 간접적인 투쟁을 묘사하고 있어 전체적인 어조(語調)가 다소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그렇지만 본서신은 이단과의 직접적인 투쟁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고 격렬한 표현이 눈에 많이 띈다.

7. **㉠** 본서신에 흐르고 있는 주된 사상 및 가르침을 지적하라.

㉠ (1)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라는 사상에 입각한 가르침이다(1:18).

(2) 둘째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에 관한 가르침이다. 바울은 본서신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을 때 이 세상의 거짓된 지식과 가치관을 이길 수 있다고 역설(力說)했다.

8. **㉡** 본서신은 왜 철학을 금기시(禁忌視)하는가?

㉡ (1) 바울이 공격했던 철학(2:8, 20)은 기독교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영지주의 철학이었다.

(2) 이 철학은 영(靈)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이원론적 사고 방식에 기초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神人兩性)을 부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관한 초대 교회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려고 하였다.

(3) 또한 영지주의 철학은 육신의 죄가 영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르침으로써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했다.

(4) 그러므로 바울은 이 철학을 통렬하게 비난했던 것이다. 2세기에 성행한 영지주의 철학과 투쟁했던 교부(敎父) 터툴리안(Tertullian, ? - A. D. 220년경) 역시 이 철학에 대한 혐오감에서 ‘예루살렘이 아테네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말한 바 있다.

(5) 하지만 바울이 철학에 문외한(門外漢)이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도중 아테네에 들러 쟁쟁했던 에피큐로스 학파(Epicurean School)와 스토아 학파(Stoic School)의 철학자들과 쟁론(爭論)을 벌였던 사실을 볼 때, 우리는 그가 철학에 매우 능통했음을 알 수 있다(행 17:16-34).

(6) 어거스틴(Augustin, A. D. 354-430)도 그의 저서인 고백록 제 7권에서 신(新)플라톤 철학을 깊이 연구한 것이 그를 기독교에 더욱 접근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회상했다.

(7) 이로 보건대 건전한 철학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蒙學先生)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밖에 없다.

(8)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선언했던 것이다(빌 3:8).

9. **㉢** 본서신의 대지를 구분하라.

㉢ (1) 머리말 / 1:1-14

- ① 인사말 / 1:1, 2
- ② 골로새 교회의 신앙에 대한 감사 / 1:3-8
- ③ 골로새 교회의 성장을 위한 기도 / 1:9-14

(2) 뛰어나신 그리스도 / 1:15-29

- ① 그리스도의 특성 / 1:15-23
- ② 바울이 받은 소명 / 1:24-29

(3) 뛰어난 기독교 / 2:1-23

- ① 철학에 대하여 / 2:1-10
- ② 율법주의에 대하여 / 2:11-17
- ③ 신비주의에 대하여 / 2:18, 19
- ④ 금욕주의에 대하여 / 2:20-23

(4) 뛰어난 소명 / 3:1-4:6

- ① 우리의 소명의 확실성 / 3:1-4
- ② 우리의 소명의 특징 / 3:5-4:6
 - ㄱ. 일상 생활에 있어서 / 3:5-17
 - ㄴ. 가정에 있어서 / 3:18-21
 - ㄷ. 종과 주인의 관계 / 3:22-4:1
 - ㄹ. 기도에 있어서 / 4:2-4
 - ㅁ 증거와 말에 있어서 / 4: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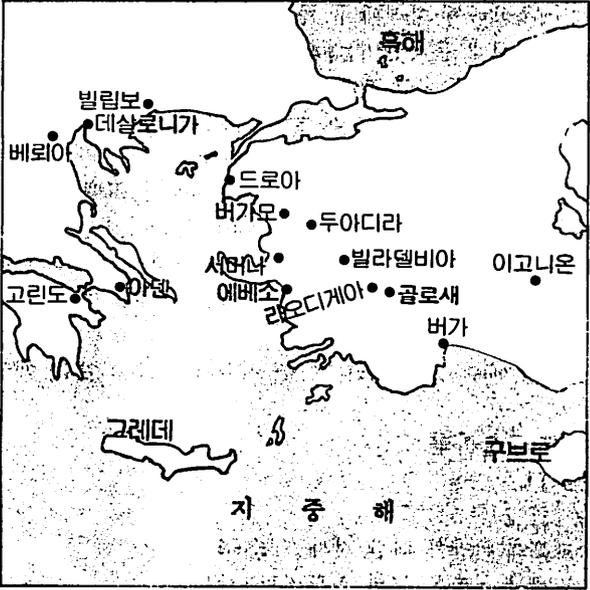
(5) 끝맺는 말 / 4:7-18

10. ㉓ 본서의 요절을 말하라.

- ㉓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2:6, 7).

지도자료

골로새의 위치



골로새는 라오디게아 서북쪽 약 20km 지점에 위치한 브루기아 지방의 소도시이다. 본래는 에베소에서 유프라테스 강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위치하였던 관계로 흥왕하였던 이 도시는 로마 치세하에서 그 중요성이 격감되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이곳에 교회가 설립된 경위에 대하여선 성경상의 언급이 없지만 학자들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결과 교회가 설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제 1 장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

단락구분 1-2 인사말 / 3-8 골로새 교회의 신앙에 대한 감사 / 9-12 골로새 교회의 성장을 위한 기도 / 13-23 만물의 머리되신 그리스도 / 24-29 바울이 받은 소령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2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4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으로

5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6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데도다

7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8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9 이로써 우리도 들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체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법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1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15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합쳐 썼느니라

18 그는 모든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9 아버지께서는 모든 총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1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4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5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6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음으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8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 하노라

1. **㉠ 본장의 내용을 요약하라.**

- ㉠ (1)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와 같이 수신자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문안 인사를 하였다(1, 2절).
- (2) 또한 에바브라를 통해 들은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였다(3-8절).
- (3) 더우기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 내용을 밝힘으로써 그들을 향한 자신의 관심과 사랑을 표명했다. 아울러 그는 골로새 교회가 더욱 성장할 것을 은연중에 격려했다(9-12절).
- (4) 계속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간략히 언급한 후(13절) 골로새서 특유의 기독교론(基督論)을 전개하였다(13-23절).
- (5) 본장의 마지막 부분(24-29절)은 교회 일꾼으로서의 바울이 지닌 소명감을 매우 감동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6) 따라서 우리는 본장을 통해 우리가 속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원리를 파악하는 한편, 바른 기독교론을 확립하고, 우리에게 부여된 소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일꾼으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2. **㉠ 바울의 사도직의 기원과 권위에 대하여 설명하라(1절).**

- ㉠ (1) ‘사도’(헬, 아포스톨로스)란 ‘파송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함을 받았으며(행 9:15),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파송되었다(행 22:21).
- (2)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기원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원해서 사도직을 받았거나 사람들에게 의해 사도로 추천받은 것이 아니라(갈 1:1)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함을 입어 사도가 되었음을 천명(闡明)한 것이다(참조, 갈 1:15, 16).
- (3) 또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권위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어순(語順)은 높아지신 예수를 강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배열한 것이다. 이러한 칭호는 본서신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탁월성(卓越性)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15-23절).

3. **㉠ 본서신은 바울과 디모테가 공동으로 집필했는가? (1절)**

- ㉠ (1) 그렇지 않다. 3-14절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 두 사람이 본서신을 함께 썼을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하지만 23절-4:18에서는 ‘나’라는 표현만 있어 본서신이 바울의 단독 저작임을 강력히 시사(示唆)해 주고 있다.
- (2) 아마도 바울은 본서신을 쓸 때, 가까이 있었던 디모테의 안부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 같다.
- (3) 한편 그는 연령상으로도 어리고 영적으로도 자신의 아들뻘밖에 되지 않는 디모테(딤후 1:2)를 ‘형제’라고 불렀다. 그만큼 바울은 겸손했으며, 후배 사역자를 사랑했다(딤후 1:2).

4. **㉠ 사도 바울은 본장에서 성도(聖徒)를 어떻게 정의하였는가? (2절)**

- ㉠ (1) 첫째, 바울은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정의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누구나 이방인이다(엡 2:12).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도가 되며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엡 2:13, 19).
- (2) 둘째, 바울은 성도를 신실한 자라고 정의했다. ‘신실하다’(헬, 피스토스)는 말은 ‘충성스럽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

야 한다(고전 4:1, 2).

- (3) 세째, 바울은 성도를 형제라고 정의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다(요 1:12). 그러므로 성도들은 서로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형제’(헬, 아델포스)라는 말은 ‘한 배(腹)에서 난 자’라는 뜻인데 성경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고 말하고 있다(히 2:11).

5. ㉠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내용을 설명하라(2절).**

- ㉠ (1) 첫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했다. ‘은혜’(헬, 카리스)라는 말은 신약에 155회나 나오는데 대부분 바울의 서신 속에 나타난다. 바울은 이 말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묘사하기 위해 자주 사용했다(롬 3:24; 5:15).
- (2) 둘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다. 하나님은 신앙의 즐거이가 견고한 자들을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는 분이다(사 26:3). 평강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shalom>과 헬라이어 <에이레네>는 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적인 번영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다.
- (3)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과 영적 타락을 모면할 수 없다.
- (4)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던 것이다(롬 1:7; 고전 1:3; 고후 1:2; 갈 1:3; 엡 1:2; 빌 1:2; 살전 1:1; 살후 1:2).

6. ㉠ **바울을 기쁘게 했던 골로새 교회의 세 가지 덕은 무엇이었는가? (3-8절)**

- ㉠ (1) 첫째는 골로새 교회의 믿음이었다(4a절).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믿음 위에서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엡 1:15, 16; 몬 1:4, 5).
- (2) 둘째는 골로새 교회가 간직한 소망이었다(5절).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두신 ‘성도의 기업’(12절)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리킨다.
- (3) 세째는 골로새 교회가 행한 사랑이었다(4b절). 그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깊이 있고 폭넓은 사랑을 베풀으로써 바울을 기쁘게 했다.
- (4) 그러므로 오늘날의 사역자들은 바울과 같이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에 풍성해지는 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참조, 살전 1:2, 3). 성도들의 물질적 번영이나 현금 액수의 증가만을 기뻐하는 것은 참된 사역자의 자세가 아니다(딤후 6:10, 17-19).

7. ㉠ **복음의 영향력에 대하여 설명하라(3-6절).**

- ㉠ (1) 복음은 힘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롬 1:16).
- (2) 이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5, 6a절), 비로소 우리는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참조, 롬 10:17).
- (3) 또한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5절). 성경은 우리가 기록된 복음 곧 성경 말씀 속에서 참된 소망을 찾을 수 있다고 교훈하고 있다(롬 15:5).
- (4)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참사랑의 길을 보여 준다(4, 5b절). 만일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순종한다면 거짓 없는 형제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벧전 1:22).
- (5) 그 뿐 아니라 복음은 청종(聽從)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다(6a절).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행한 고별 설교(행 20:17-35)에서 에베소 교회를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하였다(행 20:32).
- (6) 더우기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인 자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바울 자신이 직접 체험했다.
- (7) 즉 바울은 제 3차 전도 여행 도중,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書院)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다(행 19:8-10). 이때에 복음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중추 세력이 되었다. 그 당시 골로새도 복음화되었는데,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인 골로새 교회가 여러 지역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도록 하는 일에 기여했던 것이다(6절).

8. **㉠** 에바브라는 어떤 인물인가? (7, 8절)

- ㉠** (1) 에바브라는 빌립보 교회의 신실한 일군이었던 에바브로디도(빌 2:26-30;4:18)와는 다른 인물이다.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거주지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즉 에바브라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살았지만 에바브로디도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살고 있었다.
- (2) 에바브라는 골로새 태생인 것으로 짐작되며(4:12), 루쿠스 골짜기(Lycus Valley)의 3대 성읍이었던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에서 큰 활약을 한 사역자였던 것으로 보인다(4:13).
- (3) 어떤 이유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는 바울과 함께 로마 옥중에 갇혀 있기도 했다(몬 1:23).
- (4)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는 자기가 봉사하던 교회들을 위해 애써 기도하며(4:12), 그 교회들이 가진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바울과 긴밀하게 상담(相談)했던 충직한 사역자였다(7, 8절).
- (5) 이와 같은 에바브라의 사역 자세는 결핍하면 교회를 옮기고, 자기 몸을 도사리려고만 하는 오늘날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귀감(龜鑑)이 되고 있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성실한 일군이 되어야 한다(참조, 눅 16:10).

9. **㉠**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자세를 설명하라(9절).

- ㉠** (1)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날마다 기도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접하고 그 교회들을 위해서도 쉬지 않고 기도했다(엡 1:15, 16; 빌 1:3-5).
- (2) 옛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士師)였던 사무엘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단언한 바 있다(삼상 12:23).
- (3) 이들과처럼 우리도 나라와 민족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교회와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일군이 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엡 6:18-20).

10. **㉠**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제목을 설명하라(9-12절).

- ㉠** (1) 바울은 먼저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하였다(9절). 그 까닭은 골로새 교회 안에 '신령한 지혜'를 소유했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자들은 영적으로 패망할 수밖에 없다(참조, 호 4:1, 6).
- (2)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교회의 주인되신 하나님께 합당한 삶,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간구했다(10a절). 이러한 삶이야말로 9절에서 말한 바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롬 12:1, 2).
- (3) 계속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되기를 간구했다(10b절). 구속(救贖)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마땅히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딤후 2:14).
- (4) 또한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를 간구했다(10c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욱 기뻐하신다(호 6:6). 그러므로 호세아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쳤다(호 6:3).
- (5) 다음으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기를 간구했다(11a절).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겪어야 할 이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참

조, 엡 6:10-12).

- (6)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이단과의 싸움에서 인내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구했다 (11b절). 인내는 악한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하는 성도들의 필수적인 덕목(德目)이다 (계 2:2, 3; 13:10; 14:12).
- (7) 마지막으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그들에게 성도의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12절). 감사하는 생활은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초래한다(고후 4:15).

11. **㉠**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13절)

- ㉠** (1) 먼저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셨다고 묘사했다. '건져 내사'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르뤼사토>인데 이는 '구원하다', '해방시키다' 등의 뜻을 함축하고 있다(살전 1:10).
- (2) 한편 '흑암'은 성경에서 죄악을 상징한다(요 3:19; 롬 13:12). 그러므로 본절의 문맥을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죄악의 수렁에 빠져 신음하는 우리를 끌어내어 구원하셨다는 의미가 된다.
- (3) 다음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묘사했다. '옮기다' (헬, 메티스테미)라는 말은 본래 '이민(移民)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4)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영접하셨다는 의미이다. 바울은 로마에 오기 전에 아그립마 앞에서 자신이 이러한 구원 사역의 심부름꾼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피력한 바 있다(행 26:15-18).

12. **㉠** 구속(救贖)이란 말의 의미를 논하라 (14절).

- ㉠** (1) 구속(헬, 아포르뤼트로신)이란 말은 노예나 전쟁 포로가 응분(應分)의 값을 치루고 풀려 날 때 사용되던 용어였다.
- (2) 바울은 본절에서 구속을 '죄 사함'이라고 정의했다. 이 말은 헬라어 <아페시스>의 번역인데 문자적으로 '놓아 보냄'을 뜻한다.
- (3) 본래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고(롬 3:23) 그로 인해 사망의 포로가 되었었다(롬 5:12).
- (4)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상황을 '죄 아래 팔렸다'는 말로 묘사했다(롬 7:14).
- (5) 죄 아래 팔린 인간이 구속 곧 자유함을 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속전(贖錢)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속량할 능력이 없는 존재이다.
- (6) 이러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전으로 지불하셨다(요 3:16).
- (7) 사도들은 유일절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풀어 주는 유일 무이한 속전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엡 1:7; 벧전 1:18, 19).

13. **㉠** 본장에 나타난 기독교론(基督論)을 설명하라 (15-22절).

- ㉠** (1) 첫째로 그리스도의 본성이 장엄한 필치로 묘사되었다. 그중에서도 그의 신성(神性)이 많이 강조되었다(15-17절). 그 이유는 골로새 교회에 인본주의에 입각한 철학이 침투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격하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 (2) 또한 그리스도의 인성(人性)이 강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 (15절), '그의 육체' (22절) 등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던 영지주의의 그릇된 가르침을 근본적으로 뒤엎고 있다.
- (3) 둘째로 그리스도의 신분이 무게있게 묘사되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시다(16, 17절). 또한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18절). '머리'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2장의 **㉠** 8을 참조하라.
- (4)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분을 소개함으로써 골로새 교회가 바른 기독교론에 기초한

신앙을 가질 것을 호소한 것이다.

- (5) 세째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묘사되었다. 바울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和睦使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20-22절).
- (6) 즉 바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형성된 원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으로 해소되었음을 설명했던 것이다.
- (7) 특히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는 표현(21절)은 골로새 교회가 영지주의의 도덕 폐기론으로 다시 죄악에 빠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을 거스리는 잘못을 경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었다.

14. **㉠**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이 초래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22절)

- ㉠** (1)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격으로 서게 한다.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인격은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포함한다.
- (2) 첫째, 거룩함이다. 성도가 세상의 더러움에서 떠나 생활하지 않으면 거룩한 성품을 소유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악함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활에 주력해야 한다(롬 12:1, 2).
- (3) 둘째, 무흠(無欠)이다. 여기서 '흠이 없고'(헐, 아모무스)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던 흠없는 가축에 사용되었던 제사 용어이다(레 1:3, 10). 이로 보건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인격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 (4) 세째, 의로움이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비난할 만한 죄가 없다는 뜻이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까닭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다(롬 8:33).
- (5) 그러므로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을 죄의 형벌을 당할 자로 송사(訟事)할 수가 없다. 따라서 NIV에는 '책망할 것이 없는'이란 말이 '송사로부터 자유로운'(free from accusation)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15. **㉠**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22, 23절)

- ㉠** (1) 첫째로 믿음에 거해야 한다. 원문에는 '믿음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생겨난다(롬 10:17).
- (2) 둘째로 터 위에 굳게 서야 한다. 여기서 '터'는 고전 3:11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기 보다 신앙의 견고성을 상징한다. 반석과 같이 견고한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생겨난다(마 7:24, 25).
- (3) 세째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복음의 소망'이란 말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최후 구원에 대한 염원을 의미하는 듯하다. 이러한 소망 역시 말씀으로 인해 생겨난다(롬 15:4).
- (4) 그러므로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시 1:2) 순종하는 생활(시 119:57)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16. **㉠**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일컫은 것은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인가? (23절)

- ㉠** (1) 그렇지 않다. '일꾼'(헐, 디아코노스)이라는 말은 '섬기는 자'(KJV, minister), 즉 '종'(NIV, servant)을 뜻한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로 세움을 받은 사도이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 일하는 미천한 종임을 겸손히 고백한 것이다.
- (2) 하지만 오늘날에는 권위주의에 빠져 종의 신분을 망각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다. 명예와 권위만 찾는 자들은 책망을 면하지 못한다.
- (3) 예수께서는 '누가 크냐?'하면서 다름을 일으켰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써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 주신 바 있다(눅 22:24-27; 요 13:4-11).

(4)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명예와 권위를 추구하기 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와 권위를 추구하면서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복음 전파하는 데 맘을 흘려야 한다(고후 4:5).

17. **㉠** 참된 사역자의 자세를 설명하라 (24절).

- ㉠** (1) 참된 사역자는 성도들을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쁘게 감수(甘受)해야 한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다가 투옥되었으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게 됨을 기뻐하였다.
- (2) 이 같은 바울의 자세에 대해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때때로 로마 옥중의 쇠사슬 소리를 들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그 땀땀한 수감자(바울)의 흐느낌은 들을 수 없을 것이다.'
- (3) 또한 참된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을 달게 받는다. 여기엔 정신적 고난 뿐만 아니라 육체적 고난도 포함된다.
- (4) 요즘엔 참된 신앙과 사역에 수반되는 고난보다 현실적 축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고난을 외치는 설교자는 인기가 없고 축복을 입버릇처럼 외치는 설교자는 많은 교인을 끌어들이는. 이런 경향은 말세(末世)의 징조로 이미 예고되었다(딤후 4:3, 4).
- (5)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딤후 1:8;4:5).

18. **㉠**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군을 세우시는 까닭은 무엇인가? (25절)

- ㉠** (1)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일군을 세우신다.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하나님의 양(羊) 떼를 위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거짓 일군은 흉악한 이리와 같다(행 20:29).
- (2)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일군을 세우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 (3) 첫째, 구약에 예언된 이방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한다(KJV, fulfil)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롬 15:8-12). 이 해석은 복음 전파, 즉 선교와 관련된다. 이 해석을 따르면 바울이나 교회 일군은 선교를 위해 세움을 받는 것이다.
- (4)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발표한다(NIV, present). 즉 가르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해석은 교육 사역과 관련된다.
- (5) 아마도 두 가지 해석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 일군을 세우시는 목적은 선교와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 (6) 그러므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은 복음 전파와 말씀 교육을 위해 겸손히 봉사해야 할 것이다.

19. **㉠**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란 어떤 것인가? (26, 27절)

- ㉠** (1) 신약에서는 '비밀'(헬, 뮈스테리온)이라는 말이 성령의 계시 이외에는 밝혀질 수 없는 진리의 대용어(貸用語)로 사용되고 있다(고전 2:6-12).
- (2) 이 '비밀'은 감춰어져 있던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계시되었다(26절). 하나님께서는 종종 자신의 은밀한 계획을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들에게 보여 주신다(창 18:17; 암 3:7).
- (3) 그런데 이 '비밀'은 유대인 뿐 아니라 이방인 구원에 관한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27a절; 엡 3:3-9).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온 세상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생소한 소식 곧 비밀이었던 것이다.
- (4) 따라서 이 '비밀'은 온 세상이 기뻐해야 할 구원의 복음을 담고 있으며(엡 6:19), 구원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므로(행 4:12) 예수 그리스도가 곧 비밀이라고 할 수 있다(27b절).

20. **㉠** 교회 교육의 과정과 목적에 대해 바울이 말한 바를 설명하라(28절).

- ㉠** (1) 교회 교육은 전도에서 시작된다. 바울이 '가르친다'는 말을 하기 이전에 '전파한다'는 말을 사용한 것을 볼 때 이러한 사실이 더욱 분명해진다.
- (2) 즉 전도 혹은 선교가 없이는 교회 교육이 성립되지 않는다.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을 도외시(度外視)하는 교회는 한낱 이념 교육의 장소에 지나지 않는다.
- (3) 한편 교육 혹은 양육(養育)이 없는 전도 역시 생각할 수 없다. 전도만 하고 교육 사업에 힘쓰지 않는 교회는 아기를 낳기만 하고 양육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무책임한 어머니와 같다.
- (4)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重生)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인격자로 성장하도록 교육에 힘써야 한다. 이것이 교회 교육의 목적인 동시에 교회 설립의 목적인 것이다(마 28:18-20).

21. **㉠** 교회 일꾼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봉사해야 하는가? (29절)

- ㉠** (1) 우선 봉사의 목적을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교회 안의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교육 사업(28절)을 가리킨다. 봉사의 목적을 더욱 자세히 파악하려면 엡 4:11-15를 참조하라.
- (2) 그리고 성령의 역사(役事)를 따라 봉사해야 한다. 즉 개인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철저히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일해야 한다(갈 5:16, 17, 25, 26).
- (3) 또한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한다. 헬라이어 <아고니조메노스>는 운동 선수가 승리를 위해 분투(奮鬪)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성령의 권능과 역사하심을 힘입어 최선을 다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한 일꾼에게 주실 의(義)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딤후 4:7, 8).
- (4) 그렇지만 우리는 자신의 사역을 스스로 평하고 공치사(功致辭)하는 잘못에 빠져서는 안 된다.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참조, 약 4:16).
- (5) 오직 우리는 말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로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겸손히 고백해야 한다(눅 17:10).
- (6)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이 말은 신실한 종들이었던 종교 개혁가들의 모토(motto)였다. 이러한 삶의 자세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본장의 요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8절).



제 2 장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

단락구분 1-3 골로새 교회에 대한 바울의 관심 / 4-5 권면의 목적 / 6-7 믿음에 굳게 서라는 권면 / 8-10 헛된 철학에 대한 경계 / 11-17 형식적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 / 18-19 신비주의에 대한 경계 / 20-23 이단에 대한 총괄적인 비평

1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2 이는 저희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3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4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5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6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8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9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11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합

계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3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박으시고

15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16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17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18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좇아 헛되이 과장하고

19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20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21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22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좇느냐

23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1. ㉠ 본장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취급되어 있는가?

㉠ (1) 1장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따라서 문체도 매우 부드럽다. 본장에도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과 관심이 여실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단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권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면서부터 문체도 다소 강렬해진 편이다.

(2) 바울은 먼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표명(表明)했다(1-3절). 즉 그

는 자신이 이후에 권고하는 말이 결코 악한 감정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해지는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 (3)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들에게 편지한 목적을 명확히 밝히면서(4, 5절), 믿음에 굳게 서라는 권면을 하였다(6, 7절).
- (4) 계속해서 바울은 글로새 교회가 헛된 철학을 주의하고(8-10절) 형식적 율법주의의 오류에 빠지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11-17절).
- (5) 이외에도 바울은 신비주의의 해악(害惡)을 상기시킨 후(18, 19절) 위에서 언급한 이단들의 가르침이 신앙 생활에 백해 무익(百害無益)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 (6) 본장은 글로새 교회처럼 이단의 도전에 직면한 현대의 교회를 향해 울려 퍼진 경계의 나팔이다. 본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깨달을 수 있다(참조, 행 20:28-31).

2. **㉠ 왜 바울은 글로새 교회에게 그들을 위한 자신의 노력을 알아 달라고 했는가? (1, 2절)**

- ㉠** (1)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과시하여 글로새 교회의 존경을 받으려 한 것은 아니다.
- (2) 단지 그는 글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위안(慰安)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다(2a절). 이단의 침투에 당황했던 그들에게 있어 바울이 그들을 위해 힘을 쓰고 있다는 말보다 더 큰 위로는 없었을 것이다.
- (3) 또 그는 자신의 노고(勞苦)가 글로새 교인들을 사랑 안에서 연합시키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2b절). 교회가 도덕 폐기론을 가르치는 이단들에게(참조, 서론 ㉠5) 대항하는 가장 확실한 전략은 사랑의 강력한 끈으로 서로 밀착(Living Bible, knit together by strong ties of love)하는 것이다.
- (4) 계속해서 그는 글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2c절). 왜냐하면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왜곡(歪曲)하여 가르쳤기 때문이다.
- (5) 이와 같이 바울은 글로새 교인들의 신앙이 이단의 도전을 이겨 내도록 격려하기 위해 자신의 분투(奮鬪)를 의도적으로 알고리자 했던 것이다.
- (6) 이처럼 교회 안에서 시련과 사단의 도전에 승리했다는 믿음의 간증들이 성도 상호간에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새로운 용기와 지혜를 가지게 될 것이다. 교회는 이러한 나눔의 아름다움이 항상 있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3. **㉠ 바울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소개한 까닭은 무엇인가? (2, 3절)**

- ㉠** (1)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寶貨)가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바울의 이러한 진술 속에는 세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 (2) 첫째, 참지혜와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다. 이단들은 자기들만이 참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으며 평범한 신자들보다 우월한 지식 체계를 소유했다고 자랑했다.
- (3)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참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참조, 고전 1:30).
- (4) 둘째, 그리스도 안의 지혜와 지식은 보배롭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지혜는 현실 생활에는 유용하지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될 수 없다.
- (5) 하지만 그리스도 안의 지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며(참조, 딤후 3:15),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든다(약 3:17).
- (6) 셋째, 이러한 지혜와 지식은 감춰져 있다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참지혜와 지식을 소유할 수 없다.
- (7)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은 참지식과 참비밀을 가졌다고 자처했던 영지주의 이단을 비판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들은 그리

스도가 누구인지 그 실체를 알지 못한다(참조, 고전 1:20, 21).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 하는 자를 향해 그분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계시를 허락하신다(참조, 요 14:15-26)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다.

4. **Q**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권면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4절)

- A** (1) 한 마디로 이단의 감언 이설(甘言利說)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했다고 볼 수 있다.
- (2) 이단은 교회 내에 가만히 들어와(갈 2:4) 순진한 하나님의 양(羊)들을 해치기 위해 그럴 듯한 말로 유혹한다(롬 16:18).
- (3) 그러므로 바울은 이단에게 속지 말 것을 신신 당부(申申當府)했던 것이다(참조, 8절; 엡 5:6).
- (4) 교회는 이러한 바울의 권면을 받아 복음을 혼잡케 하고 성도 개개인을 미혹시키는 이단에 공동으로 대처하여 한 사람도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5. **Q** 사역자의 기쁨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5절)

- A** (1) 첫째로 성도들의 규모(規模)있는 생활에서 유래한다. ‘규모’(헬, 탁신)라는 말은 훈련 받은 병사들의 질서 정연한 정렬(整列)을 뜻한다. 여기서는 이단의 가르침과 달리 도덕적으로 반듯한 생활을 추구했던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 (2) 둘째로 성도들의 확고한 신앙에서 유래한다. ‘굳은’(헬, 스테레오마)이란 말은 확고 부동한 충성심과 깊은 관계가 있다.
- (3) 그런데 규모있는 생활과 확고한 신앙은 말씀 안에 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시 119:9; 롬 10:17).
- (4) 이와 같이 복음 사역자의 기쁨은 성도들이 말씀 안에 사는 생활을 할 때 충만해진다고 할 수 있다(요삼 1:3, 4). 혹시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분에 넘치는 사례비와 인기에 집착해 그것을 유일한 낙으로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기쁨은 시각을 변화시켜야 마땅하다.
- (5) 교회 지도자나 성도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의 관심과 기쁨의 근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 것인가에 두어야 한다(참조, 빌 3:8, 9).

6. **Q** 예수 그리스도를 주(主)로 영접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6, 7절)

- A** (1) 첫째,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6b절). NIV는 이를 ‘그 안에서 사는 일을 지속하라’(continue to live in him)고 번역했다.
- (2) 둘째, ‘그 안에 뿌리를 박는 일’이다(7a절). ‘뿌리를 박으며’(헬, 에리조메노이)라는 말은 완료 시제로 쓰여졌다. 그러므로 본문은 성도가 단번에 그리고 영구적으로 신앙의 뿌리를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 셋째, ‘그 안에 세움을 입는 일’이다(7b절). Living Bible은 본문을 ‘너희 뿌리를 그 안에서 자라게 하여 그로부터 영양분을 빨아들이라’(let your roots grow down into him and draw up nourishment from him)고 독특하게 번역했다. 이 해석은 성도의 신앙 생활을 식물(植物)의 성장 과정으로 설명한 것이다.
- (4) 한편 KJV, RSV, NIV 등은 ‘세워지다’(built up)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성도의 신앙 생활을 건물의 축조(築造) 과정으로 설명했다. 엡 2:20-22; 3:17, 18을 볼 때, 후자의 해석이 타당한 것 같다(참조, 마 7:24, 25).
- (5) 네째, ‘감사를 넘치게 하는 일’이다(7c절).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무려 26회나 이러한 말을 사용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 속에 사는 자들이 쉽게 영적으로 미혹받을 수 있음을 그가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7. **㉠** 바울은 철학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녔는가? (8-10절)

- ㉠** (1) 신약에서 유일하게 철학이라는 어휘를 사용한 곳에서 바울은 일견(一見)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8a절).
- (2) 그러나 실상 바울은 노략질하는 철학, 즉 영지주의 철학을 공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영지주의 교사들이 말하는 가현설(假現說)을 뒤집어 버리는 9절의 선언에서 자명해진다.
- (3) 영지주의 이단 철학자들은 영(靈)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이원론적 사고 방식을 갖고 있었다. 결국 그들은 선한 영적 존재인 그리스도는 악한 육체를 입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목격된 예수 그리스도는 환영(幻影)이었다는 견해(일명 가현설)를 내세웠던 것이다.
- (4) 더구나 그들은 영혼만 순결하면 육신의 생활은 방종해도 상관없다는 도덕 폐기론을 들고 나왔다.
- (5)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규모(規模)있는 생활에 힘쓸 것을 격려하면서(5절) 이 철학을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비난했던 것이다(8b절).
- (6) 그렇지만 바울은 건전한 철학을 백안시(白眼視)한 것은 아니다. 그의 서신들은 한결 같이 철학적이며 논리적이다. 메튜 헨리(Matthew Henry)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철학적 탐구가 참지식의 획득에 유용하며 신앙의 확증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바울의 저술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 (7)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철학에 의존했던 학자라고 성급히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는 이 세상의 지혜나 철학이 성도들의 영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10절).
- (8) 세상의 지혜로는 참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없다.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거하는 데서만 얻어질 수 있다(참조, 고전 1:18).

8. **㉠**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비유한 이유를 설명하라(10절).

- ㉠** (1)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된다는 점에서 만물의 머리이다(1:16). 동서 고금(東西古今)을 통해 볼 때, 머리가 모든 생물에 있어 생명의 근원지라는 사상이 보편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 (2)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존재를 다스린다는 점에서 만물의 머리이다(참조, 엡 1:22).
- (3) 이러한 사상을 토대로, 바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선언을 본서신 중에 포함시켰다.
- (4)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다(1:18). 환언(換言)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살아 역사(役事)하는 영적 유기체인 것이다(19절; 엡 1:23; 4:15, 16).
- (5)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다(10절). 본서신과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보좌', '주관', '정사', '권세'는 이단 교사들이 순진한 신자들에게 숭배를 강요했던 천사들을 일컫는 말들이다(1:16; 엡 1:21). 그렇다면 본절은 그리스도께서 그들보다 우월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 (6) 이 두 가지 선언을 종합하면, 바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골로새 교회가 경배할 유일한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참조, 18절). 사도 요한도 천사 숭배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알려 주었다(계 19:9, 10).
- (7) 이런 의미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숭상하는 마리아나 성인(聖人)들은 복음에서 어긋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다(참조, 시 150:6).

9. **㉠** 할례(割禮)의 영적 의미를 논하라(11절).

- ㉠** (1) 본래 할례는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에 체결된 언약에 참여한다는 증표(證表)였다(창 17:9-14).

- (2) 또한 할례는 인간의 부정(不淨)을 제거한다는 상징적 의미도 가졌다.
- (3) 그러나 할례는 시간이 흐를수록 형식화되었고, 신약 시대에는 육체의 자랑거리로 오용되었으며(갈 6:13), 심지어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할례를 내세운 자들도 있었다(행 15:1, 2).
- (4) 바울은 이같이 잘못된 할례관을 시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것도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義)를 확증한 행위였다(롬 4:9-11).
- (5) 그러므로 그는 육신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 곧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을 수반하는 회개 및 신앙의 결단을 촉구했다(렘 4:4; 롬 2:28, 29).
- (6) 바울은 이러한 마음의 할례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육적(肉의) 몸을 벗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했다(11절).
- (7) 그가 말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성령을 좇아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육체를 따르지 않는 생활 속에 살게 된다(빌 3:3).

10. ㉠ 세례의 영적 의미를 논하라(12, 13절).

- ㉠ (1) 세례는 구약의 할례와 비교되며,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매우 의미있는 예식이다.
- (2) 이 예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마 28:19; 막 16:16) 지금까지 기독교회는 이 예식을 준행해 왔다.
- (3) 카톨릭에서는 세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할례를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쳤던 1세기 이단들의 교훈과 다를 바가 없다.
- (4) 물론 우리는 세례의 중요성을 간과(看過)해서는 안 된다. 세례의 중요성은 그것이 지닌 영적 의미를 바로 파악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 (5) 세례는 우선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12a, 13a절).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속 사역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롬 6:3).
- (6) 세례는 또한 ‘새 생명’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표(表)이다(13b절; 롬 6:4, 11).
- (7) 또 세례는 ‘성결’을 상징한다(13c절; 행 22:16; 딤후 3:5; 히 10:22; 벧전 3:21).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신 그리스도의 보혈(寶血)을 생각하며(요일 1:7), 성결한 생활에 힘써야 한다.

11. ㉠ 어떤 이유로 우리는 형식적 율법주의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가? (13-15절)

- ㉠ (1) 본문에서는 율법을 ‘의문(儀文)에 쓴 중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14절).
- (2) 바울에 의하면, 이 율법은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이다. 이 말은 죄로 오염된 우리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인하여 율법이 우리의 죄를 고발한다는 뜻이다(롬 3:20).
- (3)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해결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므로(갈 3:24)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다(롬 7:12).
- (4)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는 못한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갈 2:16).
- (5)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율법도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참조, 롬 8:33).
- (6)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율법의 고소(告訴)를 도말(塗抹)하셨다고 말하면서 형식적 율법주의에 속박되지 말라고 교훈한 것이다.
- (7) 물론 바울이 전적으로 율법 폐기(律法廢棄)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 그는 참신앙을 가진 자라면 율법도 더욱 잘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다(롬 3:3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무엇도 해되는 것이 없다.

12. ㉠ 구약 율법의 규례들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를 설명하라(16, 17절).

- Ⓐ (1) 율법주의자들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킬 것을 강요했던 구약의 여러 규례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상징이었다(17절).
- (2) '먹고 마시는 것' (16절)이란 말은 아마도 모세 율법 가운데 정결법(레 11-16장)에 나오는 식생활의 규례(레 11:1-23)를 언급하는 것 같다. 율법주의자들은 이러한 법들을 지켜야 인간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참조, 막 7:1-5).
- (3)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혼의 성결이 식생활의 규례를 지키는 데 있지 않고 마음의 자세를 바로 갖는 데 달려 있다고 가르치셨다(막 7:18-23).
- (4) '절기', '월삭', '안식일'은 모두 유대인들의 성일(聖日)로서 본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예배의 날들이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형식화된 행사의 날들로 전락되고 말았다.
- (5) 오늘날에도 많은 절기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처럼 절기 자체만을 중시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망각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 (6) 구약의 규례에 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는 롬 14:1-8을 참조하라. 바울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첫째로 '주를 위하여', 둘째로 믿음이 약한 자에게 덕을 끼치기 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도는 자신만을 위해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13. ⓐ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신비주의 이단의 폐해(弊害)를 지적하라 (18, 19절).

- Ⓐ (1) 신비주의 이단은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악한 인간이 두 가지 방법으로써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보았다.
- (2) 첫째로 인간 속에 내재(內在)한 영혼이 하나님에게로 여행하여 올라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존중했다. '육체의 마음을 좇아' (18절)라는 표현은 이들의 견해를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다.
- (3)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이 모두 부패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고 선언한다(롬 3:23).
- (4) 둘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내려온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들은 본질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열등하고 인간보다는 우월한 천사들을 통하여 찾아오신다는 사상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천사 숭배를 조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 (5)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仲保者)가 되신다고 가르친다(딤후 2:5).
- (6) 요즈음에도 이들처럼 입신(人神), 즉 무아 지경 속에서 영혼이 하나님께 자율적으로 갔다가 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펴는 자들이 많다.
- (7) 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도 환상에 의존하며 헛되이 과장하는 자들도 많다.
- (8) 이러한 자들은 한결같이 인간의 공로를 그리스도의 공로보다 더 강조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의 주장에 미혹되지 말고 교회와 만물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확고히 다져야 할 것이다(19절).

14. ⓐ 이단들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라 (20-2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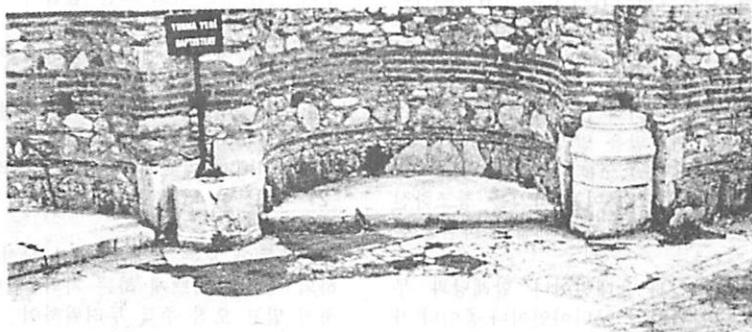
- Ⓐ (1) 첫째, 이들은 신앙 생활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든다. 각종 의문(儀文)과 규례로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것은 이단들의 현저한 특징이다. 이들의 생활은 매우 계율적이다(20, 21절).
- (2) 둘째,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강조한다(22절).
- (3) 셋째, 인간의 자율성을 크게 강조한다. '자의적 숭배' (23절)라는 말은 성경 밖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말이고, 성경에서도 유독 여기에서만 사용되었다. 그 뜻은 인간의 자

율성에 입각한 신앙 생활이란 뜻이다.

- (4) 네째, 이들은 매우 위선적이다. '검손'은 여기서 위장된 교만을 의미한다. 이단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假裝)하는 사단처럼 의(義)의 일군으로 가장한다(고후11:14, 15).
- (5) 다섯째, 이들은 지나치게 금욕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서 기인하는 문란한 생활을 자행한다.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파들도 대부분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을 장려하며, 육체 좇는 일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다.
- (6) 우리들은 이러한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도 요한의 환상 중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다(계 2:2, 3).

화보자료

십자가 모양의 세례 집전소. 에베소의 성 요한 교회에 있는 세례 집전소이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지낸 바 되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이다(12절).

제 3 장 새 사람의 생활 원리

단락구분 1-4 하늘의 일을 찾으라 / 5-11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일 / 12-17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삶의 자세 / 18-25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가정 생활

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엣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2 위엣것을 생각하고 땅엣것을 생각지 말라
 3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
 4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5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니라
 7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8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훼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9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11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 누가 너희를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

이 너희도 그리하고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체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8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19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20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1 아버지들이 너희 자녀를 격노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22 종들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앎이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5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의도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요약하라.

- ㉠ (1) 1,2장은 바울이 이단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논박(論駁)하기 위해 썼기 때문에 내용이 다분히 교리적이다.
 (2) 본장에 이르러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처럼 바른 신앙과 교리를 가진 자들이 마땅히 윤리 생활에 성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본장의 내용은 주로 실천적 권면으로 가득 차 있다.
 (3) 바울은 우선 골로새 교인들이 신령한 생활을 추구해야 하는 당위성(當爲性)을 언급하였다(1-4절).

- (4) 그리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나열함으로써 영지주의의 도덕 폐기론을 은연중에 경계하였다(5-11절).
- (5) 그 이후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선한 일들을 열거하고 나서(12-17절) 아내들에게(18절), 남편들에게(19절), 자녀들에게(20절), 부모들에게(21절), 종들에게(22-25절) 각각 부드러운 권면을 하였다.

2. ㉠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근본 원칙은 무엇인가? (1-4절)

- ㉠ (1)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삶을 영위(營爲)하려면 다음과 같은 삶의 근본 원칙을 정립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 (2)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전인격적(全人格的)으로 사모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1절), 그와 함께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어져 있으며(3절), 장차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4절).
- (3) 둘째, 위엿 것을 찾아야 한다(1절). 즉 하늘나라의 일들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NIV,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 우리가 하늘나라의 신령함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게 허락해 주신다(마6:33).
- (4) 세째, 위엿 것을 생각해야 한다(2절). 이 말은 하늘나라의 일들에 애정을 가지라는 뜻이다(KJV, set your affection on things above). 이국(異國)에 있는 사람이 고국을 향한 향수(鄉愁)에 젖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은 당연히 하늘나라를 사모해야 한다(참조, 빌3:20).
- (5) 위엿 것을 추구하라는 명령들은 원문에 비추어 볼 때 지속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령한 일들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 건전한 지상 생활을 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3. ㉠ 그리스도인이 신령한 삶을 추구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3, 4절)

- ㉠ (1) 첫째,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3a절; 갈 6:14). 웹스터(Webster) 사전은 죽음을 '관계의 단절'이라고 했다.
- (2) 둘째,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어져 있기 때문이다(3b절). 즉 우리는 죄악된 세상의 모든 위협에 해(害)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롬 8:35).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말고 선한 일에 주력해야 한다.
- (3) 세째, 그리스도인은 결국 영광의 승리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4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궁극적(窮極的)으로 허락하실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령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 사단이 가져오는 고난을 기쁘게 감수(甘受)해야 할 것이다(롬 8:17, 18).
- (4) 이처럼 성도들은 과거의 본성과 습관과 사상들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후 모두 떨쳐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변화된 인격만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할 수 있다.

4. ㉠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라(5절).

- ㉠ (1)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세상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는 앞의 선언(3절)과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
- (2) 그러나 이 문제는 지상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분과 현실 생활을 면밀히 고찰할 때 해결된다.
- (3) 신분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롬 3:24).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죄와 싸우는 상황이다(롬 7:21-23).
- (4) 바울은 이러한 뜻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권면한 것 같다. 여기서 바울이 여

러 양태(樣態)의 죄악을 '지체'라고 묘사한 것은 칼빈(Calvin)의 해석처럼 그것들이 우리에게 매우 밀착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5) 한편, '죽이라'(헬, 네크로사테)는 말은 부정 과거 명령형 동사로서 '단호하게 제거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예수께서도 이같은 교훈을 하신 적이 있다(마 5:29, 30).
- (6) 사실 우리는 참된 경건이 말씀의 묵상 또는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함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날마다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참조, 약 1:27). 세상을 향하여 자신을 죽이는 자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흡할 수 있다.

5. **㉠ 그리스도인들이 금해야 할 사적(私的)인 부도덕을 열거하라(5, 6절).**

- ㉠** (1) 바울은 본장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부도덕의 목록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비교적 사적(私的)인 것이고(5절), 둘째는 비교적 공적(公的)인 것이다(8, 9절).
- (2) 우리가 버려야 할 사적인 것 중에 먼저 '음란'(헬, 포르네이아)은 본래 매춘부와의 성행위를 뜻했으나, 점차 '습관적인 부도덕'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음란은 대개 부정된 생각에서 나온다.
 - (3) 다음으로 '부정'(헬, 아카다르시아)은 단순히 '더러운 행위'(공동 번역)만을 의미하지 않고, 정신적 불결까지도 포함하는 말이다. 부정은 사욕과 악한 정욕에서 비롯된다.
 - (4) 그리고 '사욕'은 '지니친 애착'(KJV, inordinate affection)으로, '악한 정욕'은 '부끄러운 열망'(Living Bible, shameful desires)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탐심'과 거의 같은 말이다.
 - (5) 계속해서 '탐심'(헬, 플레오네시안)이란 말은 보다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구를 뜻한다. 이러한 욕구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에 개인의 이익에 관심을 갖도록 조장(助長)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다(참조, 엡 5:5).
 - (6) 이러한 부도덕 속에 빠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6절). RSV와 NIV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the wrath of God is coming)라고 번역하여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의 긴박성을 잘 표현하였다.
 - (7) 성도들은 항상 자신의 몸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알아(참조, 고전 6:19)매사에 근신하며 절제하여 더러워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 그리스도인들이 벗어버려야 할 공적(公的)인 부도덕을 열거하라(7-10절).**

- ㉠** (1) 바울은 개인적 부도덕을 열거한 후에(5절) 바로 공적 부도덕의 여러 모습들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권면하였다.
- (2)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이웃을 대하는 태도 및 말투와 관련되었다는 것이다.
 - (3) 이러한 부도덕 중 우선 '분'(헬, 오르케)을 들 수 있다(8절). 이 말은 약간 절제된 상태의 분노(anger)를 뜻한다. 만일 우리가 이웃에게 분을 품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어 신앙 생활에 곤경을 겪게 된다(엡 4:26, 27).
 - (4) 또 '노함'(헬, 뒤모스)을 들 수 있다. 이 말은 감정이 폭발된 상태의 분노, 즉 격노(N-IV, rage)를 뜻한다. 개역 성경은 이상의 말들을 단순히 '분'이라고만 번역했다. 어쨌든 분노는 이웃을 향한 악의(愆意)를 불러일으킨다.
 - (5) '악의'(헬, 카키아)는 이웃을 해치려는 악한 기질을 가리킨다. 분노나 악의 그 자체는 직접적인 해악을 이웃에게 끼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들을 방치해 두면 언젠가 구체적인 위해(危害)의 형태로 나타난다.
 - (6) 그 대표적인 것이 '훼손', 즉 중상 모략(RSV, NIV, slander)이다. 이웃을 해치기 위한 거짓 증거는 제 9계명에서도 금한 것이다(출 20:16).

- (7) 한편 ‘부끄러운 말’ 곧 음담 패설(KJV, filthy communication)은 이웃의 영혼을 은밀하게 오염시키는 범죄 행위가 된다. 궤방과 달리 이러한 말은 듣는 자들의 방어적 자세를 허물어 버리므로 우리가 더욱 경계할 죄악인 것이다.
- (8) 바울이 마지막으로 언급한 ‘거짓말’은 그리스도인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위선(偽善)을 총칭하는 표현이다(9절). 위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몹시 증오하시는 죄악이다(마 23:13-28).
- (9) 우리는 이러한 부도덕을 더러운 옷처럼 벗어버려야 한다(8a, 9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義)로 옷입은 자들의 마땅한 도리이다(10절; 롬 13:14).

7. **㉠ 바울은 어떠한 자를 ‘새 사람’이라고 하였는가? (9-11절)**

- ㉠** (1) 첫째,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 자이다(9절). ‘옛 사람’은 정욕대로 사는 부패한 삶을 상징하는 말이다(엡 4:22).
- (2) 둘째, 하나님을 닮아 가는 삶을 사는 자이다(10a절). 여기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참조, 고전 11:1).
- (3) 셋째,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터득해 가는 자이다(10b절).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를 깨닫게 되며(렘 9:24),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생활하게 된다(엡 4:23, 24).
- (4) 이처럼 ‘새 사람’이 되는 데에는 차별, 즉 인종의 차별(헬라인이나 유대인), 종교적 특정 행위의 차별(할례당과 무할례당), 문화의 차별(야인이나 스구디아인), 신분의 차별(종이나 자유인)이 있을 수 없다(11a절).
- (5) 그 까닭은 모든 사람이 만유(萬有)를 품고 계신 그리스도(11b절)에 대한 신앙 안에서 평등하기 때문이다. ‘야인’, 즉 비(非) 헬라인이나 러시아 남부에 살았던 가장 천박한 유목민이었던 ‘스구디아인’, 심지어 비천한 처지에 있던 ‘종’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일에 차별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참조, 롬 1:14, 16; 10:12).
- (6) 그러므로 성도들의 시선은 상대방의 세상적 지위나 권력 또는 외모에 두어서는 안 되며, 항상 그 사람의 내면에 깃든 하나님의 형상에 두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에야 진정한 평등과 나눔이 있을 수 있다.

8. **㉠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함양(涵養)해야 할 기본적인 덕성들을 설명하라(12-14절).**

- ㉠** (1) 이 부분에 언급된 덕성들은 사실상 사랑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알 수 있다(참조, 고전 13:4-7).
- (2) 맨 처음 언급된 ‘금휼’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나타내는 사랑, 즉 ‘동정’(NIV, compassion)을 뜻한다. 이웃을 금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금휼히 여기심을 받는다(마 5:7).
- (3) 다음에 언급된 ‘자비’는 친절, 상냥한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눅 6:36).
- (4) 그리고 ‘겸손’(헬, 타페이노프로쉬네)은 본래 노예의 비천함을 표현하는 말이었으나 신약에서는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정신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인 겸손(마 11:29)을 항상 마음에 품어야 한다(빌 2:3-8).
- (5) 한편 ‘은유’는 ‘연약’과 달리 성숙한 자가 이웃의 무례함과 거친 태도에 대해 관용(寬容)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이 성품의 대표자이며(민 12:3),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이 성품의 대표자이다(마 11:29).
- (6) 그리고 ‘오래 참음’은 지치지 않는 사랑 또는 무한정 용서하는 사랑을 뜻한다(13절).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자(롬 2:4)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덕성인 것이다(갈 5:22).

(7) 바울은 이 모든 성품 위에 '사랑'이 첨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랑은 다른 성품들이 올바르게 발휘되도록 역사(役事)하는 원동력인 동시에 그 성품들이 추구해야 할 최고 목적이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 역시 여러 성품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권면했던 것이다(벧후 1:4-7).

9. **㉠**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신앙 생활을 운영하는가? (15-17절)**

- ㉠** (1) 첫째, 그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신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생활, 즉 그리스도께서 끼쳐 주시는 평안(요 14:27)으로 말미암는 안정된 생활을 누린다(15a절).
- (2) 둘째, 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한 몸이 되었음을 깊이 인식하며 평강의 관계를 유지한다(15b절).
- (3) 세째, 그들은 감사하는 생활로 일관한다(15c-17절).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임하는 법이다(고후 4:15).
- (4) 네째,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배받는 삶을 영위한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며 가르치며 서로 권면하는 삶을 산다(16a절).
- (5) 다섯째, 그들은 찬양이 풍성한 삶 속에 살아간다(16b절). 찬양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입술의 열매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이다(히 13:15).
- (6) 여섯째, 그들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산다(17절).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 '주 예수의 대리자로서' (Living Bible, as a representative of the Lord Jesus) 행동하는 삶이 곧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다.
- (7) 이처럼 성도의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행위들을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며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10. **㉠**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는 무엇인가? (18절)**

- ㉠** (1) 바울은 한 마디로 '복종'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남편의 횡포(橫暴)나 그릇된 주장에 무조건 희생당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이다.
- (2)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 질서의 한 부분이다(참조, 창 2:18;3:16). 따라서 아내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남편의 주장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 (3) 하지만 남편의 견해나 주장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복종을 거부할 수도 있다. 맹목적으로 남편의 범죄에 동조(同調)하다가 자멸의 길에 이른 삼비라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행 5:1-11).
- (4) 한편 우리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복종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엡 5:22-24).
- (5) 그러므로 아내된 자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기꺼이 그에게 복종하듯 남편을 사랑하며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미덕을 가져야 할 것이다.

11. **㉠**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무엇인가? (19절)**

- ㉠** (1) 첫째, 아내를 '사랑하라'(벧, 아가파테)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의 사랑은 통속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이라기 보다는 순수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뜻한다.
- (2) 이러한 사랑은 바울이 엡 5:25-32에서 논술한 대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암시적으로 보여 준다.
- (3) 둘째,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은 아내에게 육체적 폭행을 가하지 말라는 뜻 외에도 아내로 하여금 짜증나게 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 (4) 따라서 남편들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귀히 여기고(벧전 3:7), 아내에게 기쁨을 주는 생활에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12. ㉠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는 무엇인가? (20절)

- ㉠ (1) 매사에 '순종' 하는 것이다. 여기서 '순종하라' (헬, 휘파쿠에테)는 말은 '아래에서 경청하라' 혹은 '우러러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 (2) 즉 자녀된 자들은 부모들의 권위를 존중하며 공경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하나님께 대한 계명, 즉 1-4계명 다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제5계명)을 주실 정도로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를 중요시하셨다.
- (3)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출20:12; 엡6:2, 3).

13. ㉠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무엇인가? (21절)

- ㉠ (1) 여기서는 '격노케 하지 말라'는 권면만 언급되었다. 이 말은 '자극시키지 말라' (NIV, do not embitter)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 (2) 만일 부모들이 자녀들을 무리하게 다그치려 한다면 오히려 반항심을 초래하기가 쉽다.
- (3) 자녀들을 다루는 일에는 잔가지를 구부릴 때와 같은 조심성이 요청된다. 격한 방법으로 자녀를 다루려 할 때 그들을 상하게 하기 쉽상이다.
- (4) 그러므로 부모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시 127:3; 엡 6:4).

14. ㉠ 바울은 노예 제도를 두둔하고 있는가? (22-25절)

- ㉠ (1) 그렇지 않다. 혹자는 본문을 왜곡 해석하여 바울이 노예 제도를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고 비난할지도 모른다.
- (2) 그러나 바울은 노예 제도를 두둔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시의 시대적 상황 자체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것뿐이다.
- (3) 그 당시엔 웬만한 가정이라면 거의 종들을 두고 있었다. 물론 그 종들은 자유로운 생활도 못 했고 주인의 횡포에 말할 수 없는 고생을 겪었다.
- (4)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소속된 종들은 비교적 인격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 더우기 그들이 신앙을 갖게 될 경우, 그리스도인 상전(上典)들에 의해 형제 대우를 받기까지 했다(몬 1:16).
- (5)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며 이제는 주인과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종들을 향해 권면을 했던 것이다. 그는 이미 복음 안에서는 자유인과 종 사이에 차별이 있을 수 없음을 천명(闡明)한 바 있다(11절).

15. ㉠ 종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22-25절)

- ㉠ (1) 바울은 아내, 남편, 자녀, 부모들에 대해서는 짙막한 권면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 종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긴 권면을 하고 있다.
- (2) 그 이유는 상전과 종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그의 종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더욱 분명히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 (3) 본문을 고찰해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있어 '순종'이 필연적으로 요청됨을 알 수 있다.
- (4) 즉 종들이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듯(22a절) 우리는 역시 하늘에 계신 상전(4:1)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한다(참조, 눅 6:46-49).
- (5) 그런데 여기서의 '순종'은 사실상 '충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충실한 마음으로'(22b절), '마음을 다하여'(23절) 등의 표현은 '충성'의 개념을 나타내는 말들이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삼상 15:22)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면

서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것이다(고전 4:1, 2).

16. ㉠ 충성된 자들과 불충성한 자들은 각각 어떠한 보상을 받게 되는가? (24, 25절)

- ㉠ (1)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25b절; 삼상 16:7).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행하신다(시 62:12; 렘 17:10; 뱀전 1:17).
- (2) '성실한 마음으로' (22절) 충성한 자들은 '유업의 상' (24절)을 주께로부터 받게 된다(참조, 딤후 4:7, 8; 계 2:10).
- (3) 그러나 '눈가림' (22절)에 급급한 자들 곧 불충성한 자들은 자신들이 행한 '불의(不義)의 보응' (25a절)을 받게 된다.
- (4) 성실과 불성실, 충성과 불충성이 초래한 결과는 너무나 판이하다(마 25:14-30; 눅 19:11-27).
- (5)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지극히 작은 일 하나라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완수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눅 16:10).

연구자료

스토아파(Stoics). 본서신은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바울의 중요 서신이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의 특징은 유대의 율법주의, 헬라의 철학, 동방의 신비주의를 혼합시킨 신비주의(참조, 2:1-23)라는 데 있었다. 그 같은 헬라 철학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스토아 철학(참조, 행 17:18)인데 이제 이에 관하여 살펴보자. 스토아파의 창시자는 제노(Zeno, B. C. 336? - 264?)이다. 그는 본래 페니키아인이었으나 우연한 기회로 아테네를 방문, 그곳 견유학과(Cynics) 사람들을 접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서 실망을 느끼고 새로운 학파를 창설하였는데 그것이 곧 스토아파이다. '스토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현관', '주랑'(柱廊)이란 뜻인데 이는 제노가 즐겨 강의한 장소의 명칭이었던 <스토아 포이킬레>에서 따온 것이다. 한편 그들의 주된 가르침 중 하나는 인간의 지각이 참된 지식의 기초라는 점이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지각으로써 인간은 어떤 지식이라도 다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기독교의 사상과 반대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아담의 범죄 이후 죄로 오염되었으며 그 결과 영적인 일에 대해 회미하게만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자이신 하나님을 스스로 완해(完解)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범위 안에서만 인간은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스토아파의 가르침은 인간의 지각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보다 우위에 두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이 본서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2:8)고 당부한 것은 바로 위와 같은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제 4 장 기도에 힘쓰고 깨어 있으라

단락구분 1 상전들의 의무 / 2-4 힘써 기도하라는 권면 / 5-6 이웃에 대한 태도 / 7-9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대한 태도 / 10-14 측근자들의 안부를 전하다 / 15-16 라오디게아 교회에 안부를 전하다 / 17 아킵보에 대한 권면 / 18 맺는 말

1 상전들이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제심을 알지이다

2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3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은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4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5 의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6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루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7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군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8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9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10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

질 마가와(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11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12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13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14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5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늑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16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17 아킵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18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 ㉠ 본장에는 바울의 어떤 권면이 제시되어 있는가?

㉠ (1) 본장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2) 첫 부분은 3장에 언급된 그리스도인의 윤리 생활에 대한 권면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1-6절).

(3) 둘째 부분은 문안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7-18절). 여기에 소개되는 이름들은 바울이 밝히지 않았더라면 역사의 베일 속에 가리워진 채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 나갔을 일꾼들의 이름들이다.

(4) 본장을 면밀하게 고찰해 볼 때,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자신의 사명에 정열적이었으며, 동역자들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알 수 있다.

(5)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떤 특정한 인물의 독보적인 능력과 인기만을 가지고 세워질 수 없다. 그곳에는 각 지체가 하나의 목적을 두고 연합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다. 여

기서 필요한 것이 동역자로서의 사랑과 관심과 돌봄이다.

2. **㉠** 종들에 대한 주인의 의무는 무엇인가? (1절)

- ㉠** (1) 본절은 사실상 3장에 포함되어야 자연스럽다. 실제로 어떤 사본(寫本) 들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 (2) 어쨌든 바울은 상전들을 향하여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고 권면하였다.
- (3) 여기서 ‘의’는 주인이 종에게 보여 주어야 할 도덕적인 건전함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공평’은 주인이 종에게 베풀어야 할 혜택의 공정한 분배를 가리킨다.
- (4)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곧잘 일어나는 노사 분규(勞使紛糾)는 3:22- 4:1에 언급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데서 발생한다.
- (5) 물론 고용주가 곧 주인은 아니며, 노동자가 곧 종은 아니다. 하지만 본서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하는 자가 성실하게 일하고 샅을 주는 자가 공정하게 보상한다면 비생산적인 노사 분규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다.

3. **㉠**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권면했는가? (2-4절)

- ㉠** (1) 바울은 우선 기도의 자세를 언급하였다(2절). 첫째,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으므로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살전5:17).
- (2) 둘째,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재림에 대한 강화(講話)를 마치시면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눅21:8-36).
- (3)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과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3, 4절).
- (4)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 바울은 아직도 복음 전파의 열망을 불태우고 있다. 그는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의 전도 사역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것을 간절하게 당부하였다.
- (5) 이미 오래 전에 사도 베드로도 옥에 갇힌 일이 있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결국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풀려 났다(행12:1-19).
- (6) 바울이 이 일화를 알고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는 성도들의 기도가 자신의 석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하였다. 결국 그는 얼마 뒤에 풀려 났다.
- (7)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할 것이다. 복음의 확산은 온 교회의 관심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4. **㉠** 복음 전파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중에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 (5, 6절)

- ㉠** (1) 우선 ‘외인’, 즉 불신자들을 대할 때에 신중하고 지혜로와야 한다(5a절).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경거 망동(輕舉妄動)과 허물로 인해 전도의 길이 막히게 된다.
- (2) 또한 세월을 아끼는 생활을 해야 한다(5b절).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원문에 ‘기회를 구입하라’고 되어 있다. 즉 근면 성실한 생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은 불신자들에게 덕이 되며, 동시에 전도의 기회도 넓혀 준다.
- (3) 한편 그리스도인들은 언어 생활에도 유의해야 한다(6절). 은혜로운 말은 듣는 자들에게 감화를 주지만 거짓되고 속된 말은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
- (4) 그렇지만 지나치게 고상(高尚)하고 격식있는 언어 생활만 고집하다 보면 불신자들과의 대화 통로가 막힐 수도 있다. ‘소금으로 고루게 한다’는 말은 ‘대화를 순수하게 한다’는 의미와 함께 ‘대화를 재치있게 진행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들과 건전하고도 기지(機智)가 넘치는 대화를 자주 가짐으로써 전도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6)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실 것이다(6b절).

5. **㉠** 두기고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7, 8절)

- ㉠** (1) 두기고는 아시아 지방 태생으로 (행 20:4) 바울의 3차 여행 때에 헬라에서 바울과 함께 있다가 드로아까지의 육로 여행 (陸路旅行) 에 바울을 수행하였다.
- (2) 그는 바울의 신임을 받아 콜로새 교회에 본서신을 전달했고 (7절), 에베소 교회에도 바울의 편지를 전해 주었다 (엡 6:21, 22).
- (3) 본서신을 전하고 나서 (A. D. 62년경) 디도가 사역했던 그레데에 파송되기도 하였고 (딤후 3:12), 다시금 에베소에 파송되기도 했다 (딤후 4:12). 그때가 약 A. D. 66년경이었던 것 같다.
- (4) 전설에 의하면 그는 후에 콜로폰 (Colophon) 의 주교 (主教) 가 되었으며 얼마 뒤 순교했다고 한다.
- (5) 바울은 그를 '사랑을 받는 형제' 라고 소개함으로써 그의 대인 관계가 매우 원만했음을 보여 주었다.
- (6) 뿐만 아니라 그는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된 종' 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충성스러운 사역자였음을 알 수 있다.
- (7) 그러므로 그는 바울 일행의 사정을 콜로새 교회에 알려 주는 일을 위해 특별히 보냄을 받았던 것이다 (8절).
- (8) 이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내에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더욱 흥왕하고 성도 개개인도 그러한 모범적인 신앙인 삶을 목표로 생활하게 되는 아름다움이 있다.

6. **㉠** 오네시모는 어떤 인물인가? (9절)

- ㉠** (1) 오네시모는 본래 콜로새 교회의 유력한 신자였던 빌레몬의 종이였다.
- (2) 그는 아마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와 방황하다가 로마 옥중에서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 같다 (몬 1:8-21).
- (3) 결국 그는 바울의 권유를 받고 빌레몬이 있는 콜로새 교회로 두기고와 함께 돌아오게 되었다.
- (4) 바울은 그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라고 소개하였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신실하지 못했던 그가 이제는 신실한 자가 되어 돌아오게 된 것이다.
- (5) 바울은 그러한 오네시모의 변화를 가리키면서 빌레몬에게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다' 고 말했다 (몬 1:11). '오네시모' 라는 이름은 '유익' 을 뜻한다.
- (6) 이처럼 복음은 무익한 존재를 절대 필요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참조, 고전 1:18).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7. **㉠** 아리스타고는 어떤 인물인가? (10, 11절)

- ㉠** (1) 아리스타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에베소에서 소요 (騷擾) 가 일어났을 때 투옥된 바 있다 (행 19:29).
- (2) 그는 얼마 후에 바울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기도 했으며 (행 20:4), 가이사라로부터 로마까지 바울을 수행하기도 했다 (행 27:2).
- (3) 이와 같이 바울과 동고 동락 (同苦同樂) 한 그를 가리켜 바울은 '나와 함께 갇힌 자' 라고 소개하였다.
- (4) 어쩌면 그는 옥중에 있는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 함께 옥중 생활을 했을지도 모른다.
- (5) 하지만 그가 바울과 함께 갇혔다는 말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유력하다. 이 견해에 의하면, 아리스타고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6) 아뭏든 그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 중에서 바울에 협조한 드문 일꾼이었으며, 바울을 크

게 위로해 주었던 참된 동역자였다(11절).

8. **㉠** 마가는 어떤 인물인가? (10, 11절)

- ㉠** (1) 마가는 예루살렘에 살던 마리아라는 여인의 아들이라서 요한이라고도 불리웠다(행 12: 12, 25).
- (2) 그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다(행 13 :13). 결국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그를 데리고 갈 것을 거부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바나바와 심하게 다툰 후, 그와 갈라지고 말았다(행 15:36-41).
- (3) 확실히 마가는 처음부터 복음 전파를 위해 철저히 헌신할 만한 적격자는 아니었던 것 같다.
- (4) 하지만 그는 외삼촌인 바나바(10절)의 권위(勸慰)와 지도에 의해 차츰 훌륭한 일군으로 변모되어 간 듯하다.
- (5) 또 그는 베드로와 같은 초대 교회의 지도자를 수행하면서 더욱 헌신적인 사역자로 다듬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벧전 5:13).
- (6) 학자들은 그가 베드로의 가르침과 자기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작성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본다.
- (7) 한편, 본문과 딤후 4:11을 통해 우리는 원숙하게 변화된 마가를 사도 바울이 이제는 매우 대견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8) 이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실패를 경험한 사역자일지라도 얼마든지 훌륭한 일군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사례는 요나와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9. **㉠** 유스도라고도 일컬어지는 예수는 어떤 인물인가? (11절)

- ㉠** (1) 예수 유스도에 관한 자료는 본절 이외에는 전혀 없다. 그렇지만 본절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추정을 해볼 수 있다.
- (2) 우선 그의 별명, 혹은 로마식 이름에서 그는 의로운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유스도'라는 말이 라틴어로 '정의'를 뜻하기 때문이다.
- (3) 또 그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기가 송구스러워 유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는 겸손한 사역자였을 것이다.
- (4) 그가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그는 골로새 교회와 안면이 있었던 것 같고 바울이 본서신을 쓸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 (5) 바울이 아리스다고, 마가와 함께 그를 '할레당'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가 유대인이었음이 명백해진다.
- (6)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울과 함께 역사(役事)한 동역자요, 바울에게 다시없는 위로자였다.

10. **㉠** 사도 바울이 평가한 에바브라의 사역 자세를 기술하라(12, 13절).

- ㉠** (1) 첫째로 에바브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12절). 그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 항상 힘써 기도하였고 골로새 교회가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염원하였다.
- (2) 둘째로 에바브라는 봉사의 사람이었다(13절). 바울은 그가 '많이 수고'한다고 증거하였다.
- (3) 그러므로 오늘날의 사역자들은 에바브라처럼 무릎을 꿇으면 힘써 기도하고, 일어서면 많이 수고하는 참일군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장 **㉠**8을 참조하라.

11. **㉠** 누가는 어떤 인물인가? (14절)

- ㉠** (1)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이다(눅 1:3; 행 1:1).

- (2) 그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우리' 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가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그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부터 바울을 수행했을 것이라는 단정을 내릴 수 있다(행 16:10-17;20:6-16;21:1-18;27:1-28:16).
- (3) 그는 11절과 비교해 볼 때,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의 신임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 (4) 훨씬 후의 일이지만, 바울이 재차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에도 그는 바울 곁에 남아 있었다(딤후 4:11). 이러한 그의 의리와 사랑은 걸핏하면 동역자를 배신하고 떠나는 사역자들에게 좋은 귀감이 된다.
- (5) 이처럼 복음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동행과 더불어 동역자들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하다. 좋은 동역자,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처럼 복있는 일은 드물다.

12. Q 데마는 어떤 인물인가? (14절)

- A (1) 데마는 역시 위에 언급된 바울의 동역자처럼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에게 문안한 바울의 동료로 일해 온 자였다(참조, 몬 1:24).
- (2) 그러나 그는 바울이 다시금 로마 옥중에 갇히게 되었을 때,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곁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딤후 4:10).
- (3) 그의 변절은 다가온 죽음을 예감했던 노사도의 마음을 쓰라리게 했다. 오늘날의 일꾼들은 고군 분투(孤軍奮鬪) 하는 사역자를 도우며 있어 데마가 되지 말고 누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13. Q 바울이 쓴 서신들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가? (15, 16절)

- A (1) 바울의 서신들은 거의 모두 회람 서신(回覽書信)으로 쓰여졌다. 즉 하나의 서신을 인근의 여러 교회가 돌아가며 읽도록 기록된 것이다.
- (2) 물론 각 서신마다 수신자와 내용에 있어 개인적인 것도 많이 있지만, 바울 서신의 전체적인 성격은 여러 성도들이 읽고 신앙 생활에 도움을 주는 교리 문답서와 같은 것이다.
- (3) 그래서 초대 교회는 바울과 다른 사도들의 편지를 신앙 교과서처럼 여기고 회람하였다.
- (4) 바울은 본서신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회람시킬 것을 당부하였다(16절).
- (5) 한편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도 골로새 교회가 읽어야 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선 학설이 구구하다.
- (6) 가장 유력한 견해 중 하나는 그 편지가 에베소서일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결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그 편지를 바울이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치로서 지금은 분실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자연스러울 것 같다.

14. Q 늑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란 무엇인가? (15절)

- A (1) 어떤 사본들은 본문을 '늑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본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늑바'라는 이름을 남자로 볼 수도 있고 여자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2) KJV는 이를 남자의 이름으로 해석했고, RSV 및 NIV는 여자의 이름으로 해석했다.
- (3) 대부분의 학자들은 후자를 택하고 있으며 개역 성경도 이 견해를 따랐다.
- (4) 중요한 것은 초대 교회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 건물이 따로 건축되지 않았으며, 큰 방을 소유한 성도의 가정이 곧 교회당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 (5) 바울이 말한 늑바라는 여성도 라오디게아 근방의 유력한 성도였을 것이다.
- (6) 아뭏든 우리는 본질을 통해서 믿는 자의 가정이 곧 교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 (7) 즉 가정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재정하신 거룩한 기관(divine institute)이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는 것이다.

15. **㉠** 아킵보는 어떤 인물인가? (17절)

- ㉠** (1) 아킵보는 아마도 빌레몬과 압비아의 아들이었을 것이다(몬 1:1, 2).
- (2) 학자들은 그가 골로새 교회를 담임했던 목회자였으리라고 추정한다.
- (3) 그는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였다(몬 1:2).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는 권면을 그에게 남겼다.
- (5) 이 권면은 그가 한 순간에 열성이 부족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의 공격을 극복하고, 진리로써 골로새 교회를 지키라는 의미에서 주어진 것일 수도 있다.

16. **㉠** 바울이 본서신의 인사말을 직접 썼다는 사실을 밝힌 까닭은 무엇인가? (18절)

- ㉠** (1) 바울은 서신을 작성할 때 다른 수행원의 손을 사용했던 것 같다(롬 16:22). 아마도 글씨체가 좋은 사람들을 이용했을 것이다.
- (2) 그러나 최소한 마지막 인사말은 바울 자신이 직접 기록했다(고전 16:21; 갈 6:11; 살후 3:17).
- (3)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당시 바울이나 다른 사도의 이름을 방자(憑藉)한 위조 서신들이 나돌았기 때문이다(살후 2:1, 2). 둘째는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한 축도만큼은 친필로 쓰고 싶었기 때문이다.
- (4) 본서신을 끝맺으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자신의 고난을 기억하며 분발한 것을 권유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에 떠맡겨 버렸다.
- (5) 교회를 향한 인간의 염려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인간의 책임 이상의 것을 염려하는 것은 분명히 무지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염려의 최종 정착지는 하나님이어야 한다.

본장의 요절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8절).